



인터뷰

손해보험사 송무팀(손해사정사) 최규태

1. 현 직장 및 하시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송무’ 업무로, 송무는 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를 뜻합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의 소송을 주로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고 관련된 소송들의 각각 쟁점을 따져가며 업무를 합니다. 제 업무 중 가장 큰 업무는 변론기일에 소송당사자가 다투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증거들과 제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말로써 구조화시켜 작성합니다. 이 준비서면 작성은 제 업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주요업무로는 감정검토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의 측정을 재판상 신청하고 감정인이 감정을 마치면 감정에 오류는 없는지, 소송의 쟁점과 다르게 감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감정 내용 중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감정검토라 합니다. 이렇듯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지만 증거자료를 직접 확보하거나 주요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외부 출장도 간혹 있는 편입니다.

2.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분야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민법과 상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학부생 시절의 공부량에 약간의 부족함을 느껴 회사에서 동료들과 스터디를 통해 상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역시 별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업무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리들이 나와있는 법률이 상법과 민법이라서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만 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각 조항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민법과 상법은 보상업무와 소송 업무 모두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학부 출신분들은 취업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관과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계전공 과목 중 범죄학이 있는데요, 보험회사 직군 중 법학 전공자로서 접근하기 가장 가까운 직군이 보상직군이며 이 업무에서 적절한 손해액의 산정과 보험금의 계산도 중요하지만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 또한 보험회사의 보상 직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어필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범죄학을 연계전공 했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할 때 보험회사에서 가장 선호되는 자격은 아무래도 신체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어도 취업에 성공하신 분을 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취업시장에서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3. 합격을 위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하나갈 보험금액은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됩니다. 1차에서는 상법 중 보험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보험업법과 손해사정이론이 들어가며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2차에서는 의학이론, 책임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이 들어가며 논술형과 악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 약 10장 정도의 분량인데 약술형은 배점이 조금 낮고 논술형이 그보다 배점이 더 높습니다.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신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학은 필수적이지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 2차 시험 모두 1년에 한번씩만 시행이 되고 1차 시험의 경우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여서 평균적인 수험기간은 1년에서 1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차 시험은 군복무 기간중에 틈틈이 준비했기 때문에 기간을 산정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2차 시험은 대략 8개월정도 준비했었습니다.

취업준비 과정에서의 노하우는 말씀드린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던 것과 제가 구직하고 있는 업무 분야와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과수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준비과정에서 녹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직무기술서를 전혀 참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취업준비생 본인이 추상적으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있더라도 직무기술서에 표현된 내용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직무기술서에 표현된 내용과 내가 알고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시험에서 어떻게 녹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자기소개를 쓰고 면접을 볼때마다 각 회사에서 발간했던 직무기술서와 직군에 대한 설명집을 모두 참고하여 그에 맞게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4.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나 복지수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업계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연봉이 7천만원에서 1억 정도로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입사해서 받게 되는 연봉은 보통 5천만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됩니다. 물론 직무 및 자격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송무업무를 하고 있지만 보상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지금보다 수당이 더 붙어서 월급에 15% 정도 급여가 더 들어왔었습니다. 또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감

독원에 등록을 하면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월 10만원 정도의 수당이 더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저희 회사 역시 하고 있는데요, 연 2회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콘도이용권, 회사와 연계된 호텔 및 리조트 이용권, 법적 연차 말고도 체력단련 명목의 휴가를 다수 쓸 수 있습니다.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벨(work-life balance)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근무시간이 9 to 6로 야근신청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6시 15분 이후에 꺼집니다. 야근 역시 한달에 정해진 횟수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여도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5. 마지막으로 법학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쉬웠던 것이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모임에 소속되어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논했던 경험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취업에서는 면접의 형태나 기업의 정보 등 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